

 <h1>교회음악소식</h1> <p>세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 한국교회음악교육원</p>	<p>1998년 4월 23일 (목) 창간 제53호</p> <p>발행처 언더우드기념 한국교회음악교육원 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42번지</p> <p>원장 원성희</p> <p>전화 723-4961</p> <p>팩스 723-5030</p> <p>E-Mail wonmuse@chollian.net</p> <p>인터넷 http://www.underwoodmusic.org</p>
---	--

<<특강>>



종교와 음악 1



이철구

세문안음악교육원, 숭실대 교회음악과 강사
교회음악가, 작곡가

사람에게는 망각(Oblivion)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없다면 많은 생각들에 쌓여 끝내는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른다.

천지 창조 이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음악의 역사를 더듬어 가노라면 참으로 종교의 거울을 보고 있다는 착각에 허를 두르곤 한다.

음악의 시원(始原)에서 지금까지 무수한 사건들과 변화를 살펴보면서 종교와 음악의 관계는 마치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얽혀져 있어서, 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곳에는 음악이 있었다.

루터의 말을 빌면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도 영광스런 선물이다.”라고 하였다. 음악은 바로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주신 영광스러운 선물로 기독교 역사와 함께 공존하였던 것이다. 종교와 음악은 늘 같은 생각과 속도로 울고 웃으며 흘러왔고, 또 흘러간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Protestant)교회의 주역인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이 교리적이거나 성서적인 문제에 국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종교적 부패의 사슬에는 언

이번 달엔 이런 내용이

<<특강>> **종교와 음악 1** 이철구 1,2면 <<모집>>

<<교회음악용어해설>> **대영광송 (Gloria)** 4면

교회음악교실43 **교회에배를 위한 이종창 선곡 ③**

원성희 원장 5-6면

찬송가반주반 수강생 모집

제18차 크리스천을 위한 **교회음악강좌** 3면

이달의 책 7면

제나 음악적 타락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이면서도 교리적 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음악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이자 음악가였다. 그는 개신교 성악음악의 창시자요 '회중 찬송가의 아버지'라 칭송을 받을 정도로 음악가였다. 또한 스위스의 츠빙글리도 목사인 동시에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으며,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도 앞의 두 사람보다는 음악적 깊이를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던 사람이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에 비견되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음악 개혁을 주창한 핵심은 바로 기존의 모든 음악을 버리자는 것이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르네상스의 부흥기였다. 이 시기의 음악은 성악적 다성음악이 극치를 이루던 시기로 비사와 모테트, 그리고 각종 세속합창곡이 발전했으며, 오르간을 비롯한 다른 건반악기, 류트나 소합주 등을 위한 무곡, 성악곡의 편곡, 판타지나 전주곡과 같은 소곡 등 여러 나라의 기악작품이 융성했던 음악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을 모두 버리고 시편가를 단선율의 성악음악만으로 부를 것을 칼빈이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되짚어 보아야 한다.

츠빙글리가 교회의 오르간을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어 불살라 버렸던 극단적인 행동을 떠올려 본다. 종교개혁은 화려했던 음악의 모든 부산물들을 과감히 교회 밖으로 던져 버리고, 고대나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 겉거히 교회의 처자 김순이 스미는 본소리라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듯 갑자기 화려한 모든 음악은 다차원계 다저화 시오르 새가제 버지 안오 스 어느 거이다

종교와 음악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힘입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응징 앞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가며 비로소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회귀본능의 마음이 되살아나 회개와 끊임없는 용서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환멸스러운 타락의 악순환인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종교와 음악은 바른 관계로 만나야 한다. 종교적 타락의 정도를 측정하려면 교회음악의 순수성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세련되었다'는 것,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들어서 음악적으로 감동적이다'라는 것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망각하는 음악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종교와 음악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상념에 젖게 한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월간 <영산 클래식> 5월호-7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제18차 크리스천을 위한 교회음악강좌

장 소: 9월 8일-9월 29일 매주일 16시10분 - 18시, 새문안교회 제2교육관 고등부사무실(구.관현악실)

강 사: 원성희 권사 (본 음악원 원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수 강 료: 무료

내 용: 개혁운동가와 교회음악

9월 8일 "마틴루터의 음악관 (루터교회)"

9월 15일 "존 칼빈의 음악관 (개혁교회)"

9월 22일 "토마스 크램머와 존 마베크의 음악관 (성공회)"

9월 29일 "웨슬리 형제의 음악관 (감리교회)"

접수방법: 9월 7일 (토)까지 방문, 전화(02-723-4961), 팩시밀리(02-723-5030), 이메일(wonmuse@chollian.net)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이름,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출석교회, 교회직분을 알려주십시오.

문 의 : 새문안음악교육원, 723-4961 (새문안교회 제3교육관 305호)

* 주의이러 교회아이 호잔하니 대종교투은 이요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새문안교회 이력 · 관현악 시김리에서 새대무반하으로 원 비계 으고 지니지리지 으르려

(말씀사 직전) 도보5분거리,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 7번 출구.



찬송가만주만*

*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 찬송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나 집에서 예배하기 원하지만

찬송을 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개 강 : 9월 5일 (목) 오후 2시 (2개월 과정)

대 상 :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

찬송가를 4성부로 칠 수 있는 성도

모집인원 : 12명

접 수 : 방문, 또는 전화접수 후 온라인 입금

(주택 293837-01-000032 예금주: 새문안교회)

강의방법 : 공개레슨

내 용 : 찬송가 4성 집중/ 찬송가 즉흥연주 기법/ 코드 반주법

수업일 : 매주 목 오후 2시-5시

수업장소 : 새문안교회 신관 310호

수강료 : 9만원/2개월

문의처 : 새문안음악교육원 (☎ 723-4961)

지도 : 구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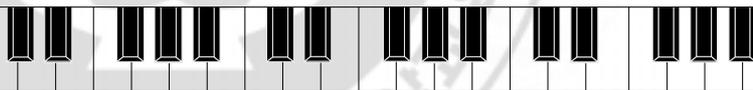
안양대 교회음악과 졸업

독일 뮌헨시립음악대학교 마이스터과정 졸업,

연주자 과정 이수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원 졸업

현 천안기독음대 출강





대영광송 (Gloria)

Gloria는 고대의 그리스어로 된 영광송이다. "Gloria in excelsis Deo~"로 시작되기 때문에 "Gloria"라는 제목이 붙었다. "대영광송"이라고도 한다.

"Gloria"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내용 즉,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성경말씀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의 찬송 (Angelic Hymn)"이라는 명칭도 갖고 있다.

"Gloria"는 미사의 통상문 (Ordinarium 즉, 때에 따라 내용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순서. 미사에 항상 있는 순서)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쁨과 찬양을 나타내는 가사의 성격상 교회 절기 중 *대강절 (Advent)과 *사순절 (Lent)동안은 부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Gloria"를 "산문체 찬미"로서 노래하였고 기록은 *Apostolic Constitutions* (c 380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헬라어로 기록한 이 "Gloria"와 비슷한 내용의 찬미를 5세기쯤에 사용하였으며, 라틴어로 된 번역은 서방교회에서 7세기 이전에 알고 있었다.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고 사용된 번역은 적어도 9세기부터 사용되었다.

수세기동안 Gloria를 주제로 한 수많은 곡들이 작곡되었는데, 미사작품 중의 한 악장으로서도 물론이지만 "Gloria"만으로 지은 독립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작곡가로는 A. Vivaldi, F. Poulenc, J. Rutter 등이 있다.

-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절기
- *사순절: 부활절 전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근신하는 절기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 평화.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께 찬미를 드리오며
 주님을 흠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며
 주님의 영광 크시기에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양, 아버지의 아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홀로 거룩하시며,
 주 홀로 주님 되시나이다.
 주 홀로 가장 높으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멘



교회예배를 위한 이중창 선곡 ②

이중창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곡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곡이 꽤 많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수준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창'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기 위해 작곡된 곡을 말하지만, 필요에 따라 원한다면 적은 그룹으로 노래해도 된다. 말하자면 소프라노와 알토를 위한 곡이면 소프라노 2-3명, 알토 2-3명이 같이 부르는 중창곡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52호에서 소개한 24곡은 거의 다 교회력의 절기에 따른 음악을 뽑아 보았는데, 이번에는 교회력보다는 특별한 예배(헌신, 장례, 결혼, 감사 등)에 사용하거나 또는 내용상으로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선교, 전도, 찬양 등) 구분하도록 해 보았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독자들에게 죄송한 것은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곡이라서 리스트에 적진 하였으나 - 예를 들면 헨델의 "Israel in Egypt" - 필자에게 번역된 악보가 없고, 악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악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얻은 것들임.) 그래서 악보구입처에 "?대한음악사(서울명동, 예술의 전당)"라고 기입한 것은 거기서 외국 악보를 매우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요즘은 여러 악보를 파는 출판사들의 홈페이지가 있고 여러 가지 악보에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 놓고 있으므로 거기서도 참고하면 된다.

다음에 24곡의 듀엣을 적었다.



원성희

본 새문안음악교육원 원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특별예배용, 일반용, 2중창 소개표

곡목	성부	작곡가	악보집	악보구입처	수준	예배
내가 주를 찬양하리	S,A	R.P.Owens	「여성명성가 I」 김범영 편	호산나음악사 (말씀사 외)	E	찬양
복을 세어라	S,A	E.O.Excell	"	"	E	기도회, 찬양
내 목자는 사랑의 왕	S,A	H.R.Shelley	「여성교회합창」 ①	기독교음악사	M	찬양, 결혼외
어지신 목자	S,A	김두완	"	"	E-M	찬양, 기도회외
어디든지 주와 함께	S,A	D.B.Towner	"	"	E-M	찬양, 부흥회
알렐루야, 주 하나님을 찬양하세 *악기와함께	자유	J.S.Bach	「여성합창을위한 성가곡집」 원성희 역편	교육원	M-D	찬양, 결혼외
참 사랑의 왕 내 목자	S,A	G.F.Handel	"	"	M	찬양, 결혼외
주여,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자유	H.H.Hopson	"	"	M (*현대풍)	찬양, 헌신외

곡목	성부	작곡가	악보집	악보구입처	수준	예배
주의 자비 노래하리라	자유	F.Mendelssohn	「여성찬양곡집」 I 김창현 편	호산나음악사	D	찬양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S,A	박재훈	「교회성가곡집」 ① 안재문 편	도서출판 엠마오	M	찬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유	F.Abt	"	"	M-D	찬양
The Lord is my strength(주님은 나의 힘)	S,S	G.F.Handel	「Israel in Egypt」 15번	?대한음악사	D	찬양, 창립취임
Thou, in Thy mercy(주님의 긍휼로)	A,T	"	" 24번	"	D	찬양, 창립광복절
오 자비하신 주는 축복으로	S,B	F.J.Haydn	「천지창조」 28번 홍정표 번역 (합창부분생략)	에텐문화사 (쉽게 구할 수 있음)	D	찬양,감사
영으로 찬양하리	S,S(또는S,A/S,T)	J.Rutter	「John Rutter 성가합창:명성가 선곡집」	선민음악	E-M	찬양,헌신
Laudamus te(주님을 찬양하나이다)	S,S	A.Vivaldi	「Gloria」	호산나음악사 (말씀사 외)	M-D	찬양
Spring Carol	S.S. (S,A)	B. Benjamin	「A Ceremony of Carols」 9번	?대한음악사	M	찬양,감사
주의 긍휼하심이	A,T	J.S. Bach	「Magnificat」 6번 홍정수 편	아가페출판사	M-D	찬양,감사
Be ye sure that the Lord	A,B	G.F. Handel	「Utrecht Te Deum」 중	?대한음악사	D	찬양,감사
곧 가서 전하라	S. Bar	D. Hustad	「주여 나를 보내소서」 10번	요단출판사	M	선교
우리는 주의 사절들	T,B	F. Mendelssohn	「사도 바울」 25번 최시원 역사	호산나음악사	E-M	선교
주 친히 명령하시길	T,B	"	" 31번	"	M	선교
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S,S (S,A)	G.F. Handel	「메시아」 38번 (편곡) 「여성합창을 위한 성가곡집」 원성희 역편	교육원	M	선교,전도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시네	자유	W. Loveless	「여성명성가」 김범영 편	호산나음악사 (말씀사 외)	E	선교,전도

* E = 쉬운편, M = 보통, D = 어려운편, 교육원 = 새문안음악교육원

위 곡들의 형태가 모두 서로 다른데, 몇몇 곡의 성부를 "자유(선택)"라고 한 이유는, 악보에 기입이 없고 음악을 보면 쉬운 편이며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으므로 남성이나 여성, 높은 음성이나 그렇지 않은 음성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나 특별 순서로 독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중정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효과적인 연주가 될 수 있겠다.

대한음악인식

이달의 책

『창작과 분석

- Gregorian Chant로부터 Brahms까지』

저자 : 이여진

출판 : 음악춘추사. 2002년. 476p.

음악인을 위한 새로운 책이 나왔다. 작곡가이자 학자이며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가 과장인 이여진 교수가 쓴 이 책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법, 새로운 감각과 특히,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므로 보는 맛이 다르고 매우 훌륭해서 모든 음악가의 책장에서 계속하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책이다.

서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음악은 과학,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 심리학, 물리, 공학의 4학문 분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말은 그 중 어느 한 학문 분야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음악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서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들 학문 분야는...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음악 이론, 작곡, 연주는 음악 분석, 심리 음악학, 음악학, 미학, 악기학, 심리 음향학, 음 합성학, 음향학 등이 학문적 연계를 통해 음악의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 좀 어려우면서도 이와 같은 소개로서 음악의 독특한 성격과 광범위함을 설명하면서 독자가 “알던 것”과 다른 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지식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두 배 정도 더 긴 대저서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선법”, 제2장 “분석이란?”, 제3장 “2성 오르가눔”, 제4장 “폴리포니란?”, 제5장 “병진행주의와 연장기법”, 제6장 “조성”, 제7장 “구조적 단위”, 제8장 “화성형식”, 제9장 “대위형식”과 제10장 “반음계주의를 향하여”이다.

이 “창작과 분석”이란 책은 쉽게 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기보다 음악을 뜻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가 격: 25,000원

구입문의: 02-2231-9001~3

교수동정

1. **강기성 교수**/ 8월 13일에는 기독교대(부산) 등교수강 강의를 하였고, 8월 22일에는 장신대 환경직 기념관에서 열리는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의 일부로 ‘서울바로크싱어즈 초청 음악회’를 지휘하십니다.
2. **김명엽 교수**/ 8월 26일에는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주 소리축제’에서, 8월 27일-29일에는 지방연주로 전주신일교회, 여수 여천중앙교회 등에서 연세콘서트 콰이어를 지휘하여 연주하십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서울바하합창단의 교회음악연주시리즈 105번째로 ‘멘델스존의 사도바울’ 제1부를 경동교회에서 지휘하여 연주하시고, 9월 27일에는 새문안교회창립 115주년 경축행사 중 하나인 ‘성가를 통해 본 민족신앙사’를 예본성가대를 지휘하여 연주하십니다. 9월 14일에는 한신교회 성가대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3. **김성봉 교수**/ 9월 29일에 새문안교회창립 115주년 경축행사 중 하나인 멘델스존의 ‘사도바울’을 세로핌성가대를 지휘하여 연주하십니다.

교회음악교육원 소식

1. 9월에 개강하는 <찬송가 반주반>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면 참조)
2. 제18차 크리스천을 위한 교회음악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면 참조)
3. 2002년 2학기 교회음악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 : 9월 2일 (월) 19시

	기 초 과 정	전 문 과 정
과 정 안 내	<p>실기분야: 발성, 기초지휘 대상: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음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자. 특별히 성가대원. 기간: (15주X2학기) 1년 수료과정 주1회 (월) 19:00-22:00 내용: 교회음악이론, 기초음악이론 및 시창, 합창훈련 및 발성법(지휘법)</p>	<p>전공분야: 독창, 지휘, 오르간반주, 피아노반주 대상: 교회지휘자, 반주자, 독창자로 봉사하고 있거나 희망하는자. 기간: (15주X2학기) 1년 수료과정 (월)19:00-19:50과 (화)19:00-21:50, 또는 (화)18:00-21:50 중 택일 내용: 교회음악이론, 전공강의, 전공실기</p>
접 수 안 내	<p>접수: 선착순 00명 (주택 293837-01-000032 새문안교회) 등록: ①방문/전화접수→입금→확인전화 ②인터넷접수 수강료: 8만원/한학기 (15주) (단, 첫학기에는 입학금 5만원 별도)</p>	<p>접수: ①8월 23일 (금)까지 방문/전화접수 ②인터넷접수 전형: 오디션-8월 24일 (토) 독창, 반주: 13시 / 지휘: 16시 ※독창, 반주/ 찬송가 1곡, 성가곡 1곡 지휘/ 시창, 기초음악이론, 면접 수강료: 16만원 /한학기 (15주) (단, 첫학기에는 입학금 5만원 별도)</p>

교회음악 뉴스

<제6회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연주회>

· 서울바로크싱어즈 초청연주회

일시 : 2002. 8. 22(목) 저녁 7시
 연주곡 : 몬테베르디, 로티 등의 종교곡들
 지휘 : 강기성

· 제6회 페스티벌 콘서트

일시 : 2002. 8. 24(토) 저녁 7시
 연주곡 : 크리스마스오라토리오(바하),
 글로리아(비발디)
 지휘 : 박창훈
 합창 : 페스티벌 콰이어

장소 : 장신대 한경직기념 예배당
 문의 : 장신대 교회음악학과 (450-5427, 450-0818)

<새문안교회 창립 115주년기념 경축음악회>

일시 : 2002. 9. 1 - 10월 6일 오후 7시
 장소 : 새문안교회 본당

일정 :

- 9월 1일(주일) 새문안 솔리스트 음악회
- 9월 8일(주일) 채리티 앙상블 "창립115주년 축하의 밤"
- 9월 11일(수) 새나리성가대 '여성성가의 밤'
- 9월 13일(금) 한기림성가대 경배와 찬양
'주 우리와 함께'
- 9월 15일(주일) 하나성가대 '러시아 찬양선교보고'
- 9월 25일(수) 새남성가대 '남성성가의 밤'
- 9월 27일(금) 예본성가대 '성가를 통해 본 민족신앙사'
- 9월 29일(주일) 새로핌성가대 오라토리오 '사도바울'
- 10월 6일(주일) 새온성가대 '구노의 장엄미사'

연주문의 : 새문안교회 (☎ 02-733-8140) 별첨안내참조